강진군,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지역발전협의회,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농특산물 못난이 장터, 어려움 겪는 농가들 도움

지난 24일 전남 강진읍시장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군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이 개최됐다.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기획됐으며 강진의 농특산물을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농특산물 못난이 장터에서는 나아농 딸기쨈, 산다움 인절미, 청자골표고버섯에서 버섯류를 준비해 코로나19 여파로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강진 5일장과 연계해 진행됐다.

소리조아 노래공연을 시작으로 관객 인터뷰와 만담 및 경품행사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다.

오선옥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장은 "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욱 사랑받는 강진읍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해 강진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서민경제의 시작인 강진읍시장에서부터 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군과 지역발전협의회, 농가 그리고 시장상인들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강진읍시장 5일장과 연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강진읍시장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강진 =김영일 기자

장흥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안전 교육' 시행

장흥군은 농업기계 활용과 보급 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 불편 해소 차원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편성하여 1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산읍 성산 2구 마을을 시작으로 7월 16일 까지 각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기계 보관 · 관리요령, 안전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수리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동력예초기, 분무기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동력예초기는 200대, 경운기는 80대가 수리되어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농기계 수리점에서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며 후반기에도 추가적으로 15회를 실시 할 계획이다.

구영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보리수매 본격 시작

3개 품종 강진읍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

강진군이 지난 19일 강진읍을 시작으로 7월까지 본격적인 보리 수매에 나선다.

올해 강진군의 보리재배 면적은 쌀보리 668ha, 겉보리 62ha, 맥주보리 356ha로 총 1,086ha이며, 지역농협, 우정정미소, ㈜두보식품, ㈜일화를 통해 보리 매입을 하고 있다.

매입품종은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3개 품종이며, 출하 때 수분함량은 겉보리와 쌀보리는 14%, 맥주보리는 13% 이내이다. 보리수매는 계약생산 약정량만 매입하므로 출하 전 맥종별, 용도별 계약생산 약정량 등 출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협 수매가격은 40kg기준 쌀보리 1 · 2등 34,000원, 등외 31,000원, 겉보리 1 · 2등 30,000원, 등외 27,000원, 맥주보리 1등 35,000원, 2등 33,000원, 등외 2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5,000원 정도 하락했다.

한편, 군은 강진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다년간 매입해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강진군동면 출신인 우정정미소 박선환 대표에게 8월 정례조회 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승옥 군수는 "보리의 경우 대량 수요처가 없는 특성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안정적 판로 확보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계약재배를 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진 =김영일 기자

장흥군, 한우산업발전 이끌 '축산리더 양성'

장흥군은 지난 24일 2020년 첫 장흥한우사양기술 교육을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이론교육중심에서 교육방법과 내용을 개선해 현장중심의 기술 교육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총6회에 걸쳐 한우사육 각 단계별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다.

1회차인 24일 교육에는 축산정책 방향과 효과적 현장 연계방안을, 2회차에는 한우 번식, 비육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3회차는 한우사료급여와 사육환경조건, 4회차는 한우질병예방 및 치료, 5회차는 한우사육 선도농가의 사례발표, 6회차에는 국내외 한우시장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한우사육농가들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사양기술을 전달 할 계획이다.

완도군-기아車 광주지회, 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내년 국제해조류 박람회 홍보 · 관람 추진…수산물 판촉 행사도 추진

(재)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에서 개최되는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일 국내 굴지의 자동차 생산 기업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2017년 박람회 때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전 직원이 완도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박람회는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수산물 판촉 행사까지 추진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박봉주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장은 "세 번째 개최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박람회 홍보와 관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구기자 진보2호 품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등록 완료…병충해에 강해 수확량 증가 기대

진도군은 신품종 구기자 진보2호를 국립 종자원에 품종등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품종 출원 후 2년여간의 적응시험을 완료하고 품종등록을 끝마쳤다.

이번에 품종 등록한 진보2호는 재래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탄저병 등 병충해에 강하고 가지수가 많아 생산량 증가가 예상 된다.

또 베타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체 농업소득작물로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진보2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7,000본의 묘목을 관내농가에 무상 보급하고, 고품질 구기자 품목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여 기술 교육과 재배농가 상호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품종개발과 대체작물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현장 방문 지도와 재배기술 리플릿 등을 제작해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